익신시에서 신규 발굴된 고문서에 대한 시론적 연구

2118.05.25

오준호



2018 13915 보과2학년일등

यम्य एमिक्समारी 교수님 너무 스웨딩 나이 .. ৬ 상하는은 어렵지만 교수님 아내려고 앉아있어요 교투님 한다남아세요...! 하나 수업 감사하는 나는 살 BETT STOCKHAMEN & FREETENSCHEN

\$500 assess pres) (384 dillans BULL to A Secole हिल्प्स १४६ अध्यत् भवन 건물이 파트적는 음악한 및 달라를 · 기타 위 구석세 경시도대로

교육님 안녕하세요!!

대번수업 잘 記 있습니다.

साधिका याम परस्याम

र्यन्त्रिक्ता एक पहिन्त्रिका 아니이 면 이어 ITT (nature call me)

पर्वेषानाह यथ नि इन्यान्ति

감사해(다!

교수보!! 되부에서 거실 학교가 각 강의한다 보다 요. . 의부에서 경기 했고가 모나는데 나무 말나도합니다!!! 방남 글개합니다.

1-20 MANGE!

Chry ; who by Story 3 who has 5/2 Walong Lose IN 33 4/5/5

Entitle Et your office of the 197 UM किटार मेहरावेगा के शहर अधिकार ११))) जाम हाम अधिका युक्त १४१२ अन् ५ ५५०। त्या वर्षा सामा प्रविश्वास्त्र । स्य प्राण क्षेत्रे प्रश्वास्त्र । सक्ष्मानारः प्रविश्वासः ।

2分2片 引叶地

(E) ET RESIMPLE (金) 多纳兰山色维思 中 吃焦

(至) 包含管内 監免 ESHEP 号公内 智慧以仁... 本 次件额以任 (P

교수님께만 유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수통군간 때문에 가먹었어요 쟤는 ㅎ 항상 강사드립니다!

Se granged and grant little for ANTAGACE. Tayle gangled and gold 20gr total touch THEME TITI ONNE SINGUEL! THE THEMEN!

고등병의 목소의 너무 취한거짓입니다. 로르고관 **용반들이나** PUB 용값은 항상을 , 휴. 91 TeRS 이시대의 5335 51년하이션(14)

254 21-441 down Using, अंध हिट प्रेट 61

गुरुवार्थेय हड्यून 245 112 वर्ष भ्रमाध्य द्वाराम्द्र प्राप्ता 트꼭라야기라고 생각하는 한 합니다

RSYZHBuck!

ITAY NIZE SHE!

Ity Ity Legat Prouch 中国是 學等的 电影的 美外班里对什么 THE THE GOVEN THE THAT! 实业 磐 八次 圣斯纳 P.S. 244 FOLLMIR!

교육시 되에 인적인 는 관상의 488 2811 3061는 작성입니당:) 정반 많은 캠의 아니지만 는 경에선 प्तिता एक स्थान्य ताम अभिगट ~! क्ष क्षा इस्म प्र व्यक्त 기선 값이 계시되면 교육상 기계기도 덕유적 게임된내기

ीठाड 819 व्यविवा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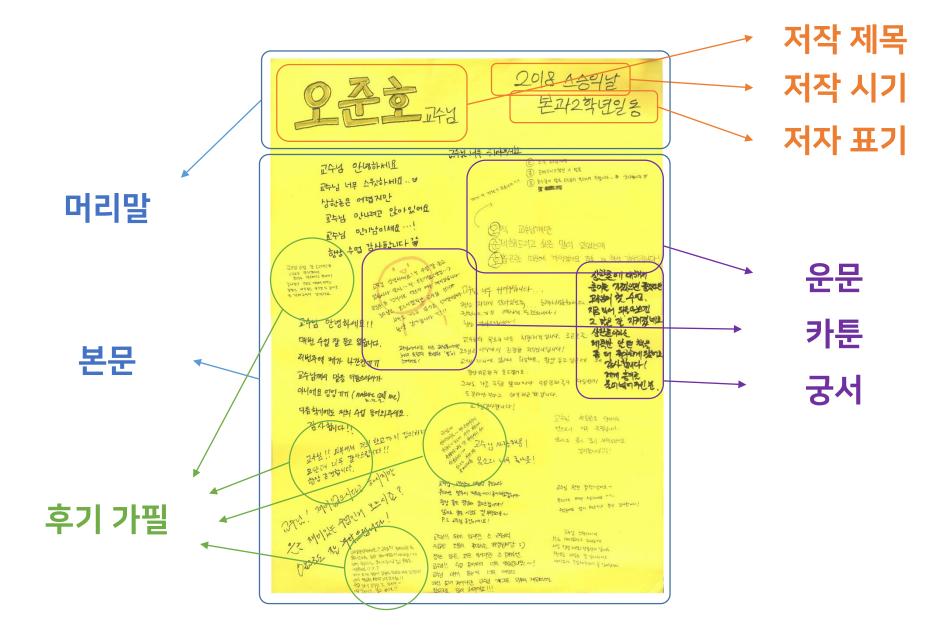
रिल्डिया यात्रीम 老の後 7月20日 香港也 政的文化 26 44 5年年2 2晚光外级时 भासि ध्रम् 書 四 新年间沙山 24 Bust MM 美国系 नेगायणन्धि

THE PRINT STANK 원론에 너무 국가되니다 THE SE THE MERCHINE WHENCE!!!!

교복님 완전 잘밤이었어요~ Reals the Alama ~ ... 수업관비의 많이 해오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TIFY MERINGIN 한국 개이었다고 하시는데 사람 강환 제임스턴뿐이게 같아요. 학병 마음도 잘 쌓는다니고 제이었어! 수항해무다시 를 건너하는데다.

형태분석



본 자료는 21세기 초반 원광대학교 본과생들이 작성한 1장의 문서이다. 질긴 재질의 노란색 종이 위에 작성 되었으며, 전형적인 양식에 따라 상단에 제목과 저작 시기 및 저자를 밝히고 하단에 내용을 배치하였다.

필체와 필기구가 다양한 것으로 여러 저작자에 의해 집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몇몇 글에서 동일 필체가 확인되며, 글의 배치로 필사 시 선후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작성된 글들이다.

운문 및 산문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집필 되었고, 이미지와 글이함께 어우러진 일부 글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파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분석

저자A

可行出 早份於 牙以作 划色的 好 无对的以外。 空间 第一次的 其际之间的 以外面以外面以外面。

저자B

```
215 HUN 250+2153 LOGATHETOUR. ?
215hura 11 Out 1 = 215hur !
```

司行公! 州口品之人以 多川川吃 之一 州口品七十日217 3201 32012?

저자C

```
REAL STATE START
 中国是 智斯 海岸 0101 年中世界出口
  होर दृह किया असम्प्रियान!
  ेर्ड प्रत्या अपनिवाह N
  P.S. 244 Formie!
14411 HOI SHIP - 1469
수 있은 경화 중이하는 학생인내당:)
정보 많은 깊은 아니만 는 경에선
교생!! 역 들게되어 너무 명광임니다~!
路台 中川 是川 山田 叫品
2년 교이 3억식단 RAY 기시그로 무유식 2억REUML
앞으2호 8kg 강4곡에요!!!
```

내용분석

부드럽고 좋은 목소리

귀여운 외모

밀소21 내목 골아운!

号红州 到梦山叶… 本

목소리도 만바라 스윗하네요 ^^...

里好。里如此时的时子叫到了

到外岛红石等时光时是野龙

一样子时地 中刊时的4十.

许利好好, 处死 神经路

오건 잘벙기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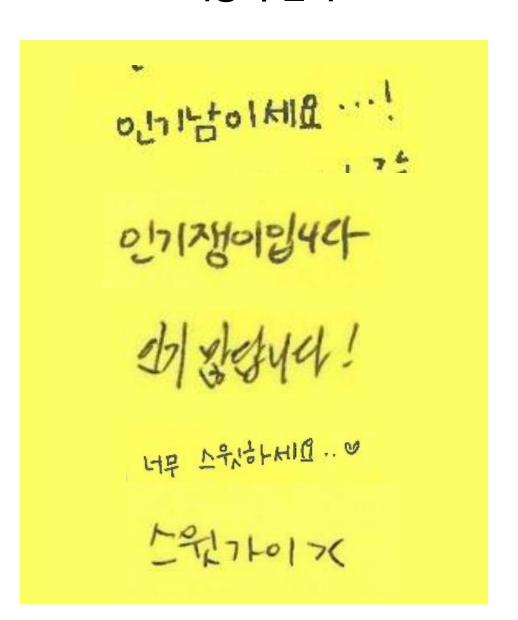
3/21/2 JE21/2/11 2/2 3/62

Fotomie!

다소 유머러스 (은근 ~ 무우지)

대중적 인기

무심한 듯 던지시는 했는가 매우 제의하는 44 可针 早龄美 牙以此 划走到 母子是好好什么 一个 如何能行理。 从是对此知识之也是则对是中化。 7475 4921 2018EUML देश भिरमभागिरंग भरापि।



맹목적 추종

강압의 흔적

亚中语的例似是 叶是 正常是的例似。

० १५५ २। २१ शहर २१५७०

강상 골경합니다.

774 7 NF2 6 3 HE !

किहिंसरा प्राप्तिमा गमप्राप्ति

대중적 인기

호감 가는 목소리와 외모



유머러스한 언동

맥목적 추종 (강압에 의한 학습?)

대상추적

해당 자료가 발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오준호교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가설1: 노령의 흰 고양이

21세기 초반부터 한국에서 1인 가구 증대와 함께 반려동물의 수가 매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집을 잃거나 버려지는 개체가 늘어나게 되었고, 비교적 생존이 용이한 공공주택단지나 학교 안에 자연서식하는 개체가 있었다.

해당 문서의 작성 장소가 원광대학교라는 점, 목소리(울음소리)가 좋고 외모가 귀여웠던 점, 행동이 재미있고 학생들 대다수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일대에 서식하던 노령의 흰색 고양이 였을 것으 추정된다.

목소리가 좋다는 점으로 보아 개보다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크며, 당대 "교수"의 이미지로 보아 흰 털을 가진 개체로 추측된다. 대상의 애칭을 "교수"로 하고, 뒤에 "님"을 붙인 것으로 보아 노령으로 움직임이 적고 자극에 둔감한 성격의 개체로 추정된다.



가설2: 비밀 종교 지도자

해당 자료 내용 안에는 맹목적 추종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지 않고, 이 가운데에는 외압에 의해 사고가 주입된 흔적도 포착된다. 이를 통해 글의 발화 대상은 당시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형성되었던 신흥 종교의 지도자로 보인다. 대상을 "교수"로 지칭한 것은 "교주"와 발음이 유사하면서 대학 내에서 의심받지 않을 만한호칭을 고안해 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종교 지도자는 "빛"이라 칭송될 정도로 강력하게 신도들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호감가는 목소리와 외모, 재미있는 언행을 통해 신도들에게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글에서 "재미"가 어색하게 강조되어 있고, "지식인"이라는 돌출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과 대중적 지지를 신도들에게 갈망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